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하나 된 열정 하나 된 대한민국 
	배포일시	2017. 11. 14(화) 총 2매	
담당 부서	감사담당관	담 당 자	• 감사담당관 박성진, 서기관 장상영 • ☎ (044) 201-3110, 3085
	운영지원과	담 당 자	• 운영지원과장 전형필, 사무관 이병우 • ☎ (044) 201-3146,3158
보 도 일 시		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한국국토정보공사(LX) 성추행 사건, 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 요청

피해자 인권 보장 2차 피해 예방 노력... 자체 징계 조치 적정성도 감찰

-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한국국토정보공사(LX) 간부들의 성추행과 공사의 자체 징계 처분과 관련해 “사건의 진실이 하나도 남김없이 밝혀지기 바란다”며 “국가인권위원회에 철저한 조사를 요청하라”고 지시했다.
 - 아울러 “피해자 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, 조사 과정에서 억울하거나 곤란한 일을 겪는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달라”고 강조했다.
- 국토교통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요청과 별도로, 해당 간부들에 대한 징계 등 본 사건에 대한 LX의 자체 조치 결과가 자기 식구 감싸기 등 온정적인 처분이었는지, 또는 절차가 적정했는지 등에 대해서도 즉시 감찰에 착수했다.
-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성추행 등의 사건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,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.

- 또한, 직장 내 성추행 등 예방을 위해 '성희롱 전용 상담실'을 개설·운영 중이며,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식개혁을 위해 '직원윤리 강령'과 성희롱 상담 등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한 '성희롱 예방 지침'을 조속히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.

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	 공개요청	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감사담당관에게 (☎ 044-201-3110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	---	---